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2월 18일 (제93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영원한 사랑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이여
그 이름 예수

샘물이 강물을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몸에 스며드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보고픈 사랑이여
오늘도 목이 메어 불러봅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이름 예수를 불러봅니다

은하수 삼형제
반달이 햇님을 맞이하듯
오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사랑
그리운 사랑이여
이 밤도 목이 메어 불러봅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그 이름 예수를 불러봅니다

朋友

봉 우 컬럼

복 많은 사람

몇 주 전, 캐나다에서 한 성도가 나를 찾아왔다. 이유를 들어보니 한국에 있는 친구가 큰 병이 걸려 입원한 상태인데, 자기가 대신 안수 받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려고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그에게서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친구를 둔 그 사람은 참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비록 중한 병에 걸려 거동조차 불편한 사람이었으나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를 어떻게든 낮게 하려는 믿음의 친구 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지분을 뜯고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놓은 그들이야 말로 참 친구다. 급난지붕(急難之朋), 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라는 뜻이다. 문득 어릴 때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른다. 늘 친구와 물려다니는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친구를 테스트한 이야기다. 죽어 피가 똑똑 떨어지는 돼지를 가마로 덮고 친구를 찾아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아들의 친구들은 하나 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구는 급히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 사태를 수습하자고 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란 급난지우(急難之友)임을 가르친 이야기다. 나는 봉우(朋友)라는 호를 쓴다. 가난하

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의 친구 중의 친구가 되려는 것이다. 늘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노력한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오고 도와주는 친구 그 이상이시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보다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을까? 급난지붕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친구 삼았다면 당신은 복이 넘칠까 굴러온 사람이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42:15~17)

고집과 믿음은 다르다

믿음과 고집은 간극이 넓지 않아 보입니다. 종종 믿음인지 고집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종자, 곧 씨앗과 같아 점차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이 있는 반면, 고집은 굳어진 화석 같다고나 할까요. 고집의 한자를 봐도 제 비유가 전혀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집은 굳을 고(固)와 잡을 집(執)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 뜻에 사로잡혀 전혀 융통성도 없고,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도 않으며, 새로운 세계에 도전도,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고집불통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소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대다수는 그 안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모험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고집 = 두려움
믿음 = 담대함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반역을 저지한 요하난이 모든 군대의 장관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위급한 시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주기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곧장 그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합니다(렘 42:5~6).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십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유다 땅에 남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집 때문입니다(렘 42:15).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부린 이유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식물의 껍질함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애굽이 낫지'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이 땅에 있으면 바벨론 왕의 보복이 임할 것 같아 두려웠던 것입니다(렘 42:11). 그래서 고집대로 애

굽으로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칭찬대신 진노를 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삼상 15:3)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라"(삼상 15:9)고 했

기 때문입
니다. 이
에 사
무

엘
선 지
자가 질
타하자 그
는 이렇게 고백
합니다. "사울이 사무

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
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
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삼상
15:24).

여러분, 고집이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사상이 그대로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33년 동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컷 상담해놓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제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려면 애당초 상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고집을 부렸을까 생각해 보면 제 말 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주의 종의 권고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미가

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아합이나(왕상 22), 아사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고집했던 웃시아처럼 말입니다(대하 26).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도다"(롬 2:5).

더더욱 하나님 앞에는 고집이 통하지도 않지만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

다는 일념으로 다른 것
과 타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러 나
그 는
예 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님
을
만난 후
에 고집 대
신 순종, 곧 믿
음의 사람이 되었습
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뒤 마게도냐에 돌아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6~10절에 자세히 쓰여 있듯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접고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위를 비판하고 바울을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적대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19~20).

여러분,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뜻을 피력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예'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에 대해 변명하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겸손을 떠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라하면 하는 겁니다. 가라하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眞理)는 결코
다수결에 있지 않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고집 피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보파리부터 쟁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생각이나 제 뜻을 버리고 무조건 '예' 했습니다. 원주민을 상대로 해외선교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왜 저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일단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요. 그러나 가라하시니 무조건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고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디도서에는 감독, 곧 교회 장로들의 자격요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딤후 1:7).

여러분, 고집은 마치 호리병 속에 든 망고를 움켜쥐고 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원숭이가 살려면 망고를 놓아야 하듯, 고집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고집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다 된 밥에 코 빠트리지 말자

애쓰고 힘써서 힘들게 이뤄놓은 일이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수가 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바로 그런 일의 주범이다. 잘 나가다가 탓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면 그야말로 멸망이다. 후회해본들 이미 쏟아진 물이 된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해매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죄를 경계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에 마귀의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낚새만 보이면 대적하여 몰아내야 한다. 낮 놓고 있다가 어느새 파고들어 온 죄의 탓에 걸려 멸망하는 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었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잠7:26). 아담도 넘어갔고, 가인도, 아간도, 고라도, 사울 왕, 발람, 삼손, 가룟 유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데마....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유명한 다윗도 당했다가 일어났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뒹뚱 났으니 말하면 뭐하겠나. 마귀란 존재는 그게 본업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24:24). 거짓 선지자를 통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마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미혹케 한다고 예수께서 종말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형통함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방해자가 끼어든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마귀의 근본 목적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하셨다. 올림픽 출전 선수가 금지약물을 투여했다가 금메달을 따고도 무효가 되고, 월드컵에서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도 반칙으로 골이 무효가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야 하듯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요압장군은 다윗의 충신이었으나 다윗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주군의 뜻을 어겨가며 자기 뜻대로 일생을 충성했다. 결과는 면류관이 아니고 다윗이 죽어가며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 한다. 새해에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달음질한 지 어느 새 한 달이 지나갔다. 잘 달리기를 원한다. 달리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의 탓이나 그물에 걸려 망가지지 말아야 한다. 정신 차리고 죄와 싸우자. 욕심은 죄의 어머니다.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나서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 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이시대 목사

:: 신앙논객 ::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800년대 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색이 바랜 낡은 옷을 입었고, 남편은 싸구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을 본 총장의 비서는 그들이 하버드에 볼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신사는 비서에게 총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비서는 총장님이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총장님이 시간이 나실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말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결국 비서는 총장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총장은 마지못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부부는 총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1년 동안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몸쓸 병으로 아들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아들을 기입할 만한 건물을 남기고 싶습니다.” 노부부의 말을 들은 총장은 노부부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버드를 다녔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일일이 동상

을 세운다면 캠퍼스 전체가 공동묘지로 변할 테니까요. 건물 하나를 짓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건물은 모두 한 동 당 750만 달러가 넘는 것들입니다.” 총장의 거만한 대답을 들은 노부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750만 달러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 아들을 위해 대학교를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버드를 떠나 캘리포니아 주로 간 노부부는 그곳에 또 하나의 사립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세워 죽은 아들을 기렸습니다. 이후로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과오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글귀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요, 우리가 대접한 낮은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내 삶의 주인(Throne of my life)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다짐했던 것이 기도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내 삶의 왕좌(Throne of my life)에는 하나님이 주인되어있던 시간보다 내가 주인이었던 시간이 더 많았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마지막 날, 한 명씩 나와서 1분씩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중 한 학생이 2017년 한 해 동안 매일 3시간씩 기도했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기도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더불어 도전이 되었다. 2018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

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을 강조하시며 매 예배 때마다 한 시간씩 기도를 시킨다. 다시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영혼의 갈급함과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는 말씀처럼 우선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봐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가?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을 모두 누리시길 기도한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포클레인으로 일하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마태복음 20장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과 삼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 그리고 육시에 구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모두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자가 불평을 토로한다. “재들은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같은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주었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저 사람의 품삯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니 참견마라.” 이 일화는 예수님을 나이 어려 믿든, 죽기 직전에 믿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는 일화이다. 그런데 목사님께서서는 이 성경일화와 함께 상급에 대해 언급하시며 “일찍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침부터 와서 깨작깨작 삼으로 일하는데, 늦게 와도 포클레인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저 주일 성수나 간신히 하는 평생 신자보다 물불을 안 가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늦게 된 자가 만

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주위를 보니 이제 성령을 받은 지 1~2년이 안된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린 시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니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연배만 따지고 있었던 안일한 나의 신앙생활습관을 버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침노하는 심정으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제3자, 포클레인으로 일하는 먼저 온 자가 되고자 그 후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했다. 그리고 지난주일, 속한 부서에서 교육할 일이 있어 이 포도원 품꾼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지난날들을 간증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80여 명의 지체들이 너도 나도 깨닫고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모두 주님께 먼저 왔든지, 나중 왔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9살짜리 소녀의 감동편지

29세 총각인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시력을 잃게 되어 절망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아홉 살 소녀를 만났다. “아저씨…, 아저씨, 여긴 왜 왔어?”, “아… 꼬마야! 아저씨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마. 여기 아픈 사람 많아~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 알았죠?”, “꼬마야…, 아저씨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둘래?”,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왜 이렇게 한숨만 푹 푹 쉰?”, “정해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을 크게 쉬는 거야.”, “근데 울 엄마가 그랬어. 병도 이쁜 맘 먹으면 낫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그 침대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 갔어.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에 별이 된다고 했어.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고.”, “음…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는데?”, “음… 그건 비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올 거라고 했어. 이젠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 올 필요 없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나랑 놀아줘, 아저씨….”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소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음지를 비추듯…. 그 후로 난 소녀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어느새 소녀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소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산책을 했고, 아홉 살 꼬마가 쓴다고 믿기에는 놀라운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근데 정해는 꿈이 뭐야?”, “음… 나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에이… 정해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응, 그렇게 잘 생겼어?”, “음… 그리고 보니까 아저씨 되게 못생겼다.” 소녀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 왔다. 2주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소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알겠지? 응… 약속.”, “그래, 약속….” 우는 소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가녀린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또 2주일이 지났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최호섭씨?”, “예. 제가 최호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증이 들어왔어요.”, “진…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지난 후 난 이식 수술을 받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증자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증자는 다름 아닌 정해였던 것이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내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가 정해의 수술일이었다. 소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것이다. 난 소녀를 한 번도 본적이 없었기에 소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난 하는 수 없이 소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많이 좋아했어요.”, “에…”,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는데…” 정해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질 못했다. “정해가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눈을 아저씨 주고 싶다고…. 그리고 꼭 이 편지 아저씨에게 전해 달라고…” 그 토박 토박 적은 편지에는 아홉 살짜리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 나 정해야. 음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에서 하늘로 갔는데…. 정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나의 눈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해야…’

일견을 키우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한 학생이 확신에 찬 큰 소리로 “낙태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상황에서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4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셋은 결핵에 걸려 살 희망이 없는데 폐결핵 중증인 어머니는 또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오늘의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해야 한다고 결정 내릴지 모를 그 아이가 바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이었습니다. 인간은 사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이것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단번에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는데, 그 개의 이름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개의 애칭은 ‘일견’이라고 하는데 일견을 잘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조절하고 억누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말이 확인되지 않은 빈말이라고 했던가요? 그 빈말에 진실이 가려져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또 다른 선입견과 편견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면 항상 일견을 키우면서 상대를 바르게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철에 불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로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움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깨끗한 만원이나 찢어진 만원이나 구겨진 만원이나 가치는 마찬가지로

A ten dollar bill has the same value
whether it's clean or ripped.
一万新韩币,撕破的旧韩币,弄皱的韩币都有同等的价值。

있는 자 없는 자, 잘난 자 못난 자 모두 마찬가지로

We are children of God,
whether we have or have not, or good or bad.
有钱的,没钱的,了不起的,没出息的都一样。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적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다. 또한 그곳의 영광스러움과 화려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그곳에 초대하신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을 모두 마무리 지으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물론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새 예루살렘 성을 목적지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욱 옳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의 신부들이 거할 천국의 수도이기 때문이다(히12:22).

총회장 목사님께서 2018년 새해 슬로건을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로 선포하셨다. 하나님 제일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현세에서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내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또 2018년은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을 받자’고 새해에 메시지를 주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범이 날개를 달고 뛰듯이 믿음의 경주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22:17). “오라 오라 오라”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신다. 새해에 범이 날개를 달고 뛰듯이 오라는 곳을 향하여 뛰어가자. 새 예루살렘 성을 목적지로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도 하고 핍박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70, 80, 90년 동안 사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삶의 목적이 다.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하며 살자.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필리핀 세부예수중심교회 유상진 목사 jcc3301@yahoo.com